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괴담집' 시리즈. '괴담집'은 크기가 성인 남성 손바닥 반만해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격도 500원에 불과해 초등학교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등생 홀리는 문방구 괴담집

친족 살인·자살 등 끔찍한 내용... 문구류 분류 단속 '사각'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문구점 앞. 하교 길에 문구점에 들른 초등학생들 입에서 어른들이 입에 담기에도 심대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이고, 남편도 자살했다” “신체 일부가 잘린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는데”

도저히 초등학생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은 아니었다. 이들이 주고 받는 이야기는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괴담집' 내용의 일부였다.

학교 괴담 또는 엽기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를 모아 놓은 포켓용 괴담 인쇄물이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 다시 유행하면서 어린이들의 정서상을 해치고 있다.

한동안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홍콩 할매'라는 괴담이 유행했지만, 최근 유행되고 있는 괴담 집은 '친족 살해'와 '자살'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는 등 더욱 엽기적이고 잔인해졌다.

특히 이같은 괴담 집은 500원짜리 포켓용으로 만들어져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무분별 판매되고 있지만, 이 같은 괴담 집은 서적이 아닌 문구류나 학습용품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법령상 정식 간행물도 등록되지 않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 적용이 되지 않는데다 형법 역시 음란물에 대해서만 사법적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초등학교 3학년 박모(9)군은 “문구점에서 파는 괴담 집은 얇고 싸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해 친구들 대부분이 한 권씩은 가지고 있다”며 “몇몇 친구들은 학교로 가지고 와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괴담 집은 수십 종류에 달하고 있다. '신 홍콩 할매의 비밀', '공포의 지하실', '가면의 저주' 등 제목도 가지가지다. 최근에는 복수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잘린 사람과 친족살인 등 끔찍한 폭력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부 괴담 집의 경우 출판사와

'14세 미만 열람불가'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것도 있지만, 출판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책들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다. 일부 괴담 집은 표면에 '학습용품'이라고 기재된 것도 있었다.

문구점 주인 강모(여·28)씨는 “최근 몇 달 사이 120여 권이 팔려, 새로 주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학교나 교육청 등에서 직접 '판매 자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YMCA 청소년 유희환경 감시단 서진영씨는 “인터넷을 통해 괴담을 보려면, 명의도움을 해 가 입을 해야하는 등 제약이 있는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팔리는 '괴담 집'은 학교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초등학생들이 갈수록 일반 만화보다 내용이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떨떨한 사람 사망 처리 '황당 행정'

여수시 “전산상 오류”

여수시가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행정 처리하는 황당할 실수를 해 가족들이 반발.

이모씨는 이날 초 어머니가 별세하

자 여수시청에 사망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보름 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죽은 사람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주느냐”는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이씨는 이후 치료를 받으려 간 병원에서 더욱 황당한 일을 당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제외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간 지급됐던 국민연금마저 중단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동사무소에 전산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처리됐다”며 “전산상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면세유 25억대 불법 유통 19명 적발

어민과 짜고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면세유 160만ℓ (25억원 상당)를 팔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주유소 대표와 어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은 22일 영암군 영산호 내수면 어민들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린 뒤 이를 과세유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중 주유소 업자 김모(여·58)씨와 어민 임모(52)씨 등 10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민 이모씨(38)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어민 명의를 도용해 면세유 1만

3천ℓ를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암 모 농협 면세유 취급 담당직원 김모(2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엔 적발된 주유소 대표와 어민들은 2003년부터 6년여에 걸쳐 면세유 구입권과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를 이용, 면세유 160만ℓ를 빼돌려 일반인에게 과세유로 팔고 차액인 세금 15억원(해경 추산)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유소 대표 김씨는 2003년부터 면세유 구매전용 카드를 어민들에게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과세유로 팔

고 부과된 세금을 서로 나누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1천만 원까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면세유를 받은 일부 어민은 어선이 아예 없거나 조업을 하지 않는 폐선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 김희태 수사과장은 “면세유 ℓ당 단가가 과세유의 40% 수준이다 보니 이 차액을 노리고 업자와 어민들이 결탁, 과세유로 판매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범행에 부부, 부자가 가담하거나 형제간 명의가 도용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광주경찰 경로 잔치

광주경찰청은 22일 낮 청사 대강당에서 노인 200여명을 초청, '사랑나눔 경로위안잔치'를 가졌다. 이날 잔치에서는 경찰악대 공연, 시립국극단의 남도민요 공연 등이 이어져 노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상대 보이스피싱 하려다...

화순경찰관 재치있는 대응 붙잡아

전화금융 사기단이 현지 경찰관에 사기 전화를 걸었다가 달미를 잡혔다.

화순경찰서 소속 민모(화순읍지구대) 경위는 지난 19일 오전 우체국 택배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신용카드를 배워야 하는데 혹시 카드를 신청하거나 납을 시켜 돈을 인출한 적이 있느냐”라며 겁을 주기 시작했다.

민 경위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이라는 것을 직감, “어제 쓸을

팔아 3천만원을 통장에 넣어줬는데 큰일났다”며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등 오히려 미끼(?)를 던졌다.

민 경위는 화순경찰 전담수사팀에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민 경위의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했다.

사기단은 이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K은행 현금인출기로 인출책 진모(여·20·중국인)씨를 보냈고 진씨가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경찰이 진씨를 체포했다. 부정계좌로 등록할 경우 사기범이 돈을 찾는 순간 자동적으로 경찰에 신고되기 때문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완도 승용차 추락 실종

3명 숨진 채 발견

지난 21일 완도군 노화도 산양항에서 집안 중이던 철부선에서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빠져 실종됐던 백모(61)씨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완도 해경은 사고가 발생하자 수색 작업을 벌여 2시간 만에 물에 잠긴 백씨의 승용차 안에서 백씨와 같은 마을 주민 등 3명의 사체를 인양했다.

해경은 숨진 백씨가 배가 접안할 무렵, 마을 주민들이 차를 태워달라고 해 뒷좌석에 태운 뒤 시동을 켜고 곧바로 출발했다는 백씨 부인의 진술에 따라 백씨가 이미 항에 접안할 줄 알고 출발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원침 (7685)



다 좋은 건축·산업재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사 : 061) 337-0571

고물수집상 쇠파이프 훔치다 달미

성나팔

○~40대 고물수집상이 건설현장에서 쓰고 남은 쇠파이프를 몰래 가져가려다 불발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P(48·광주시 광산구)씨는 전날 오전 9시10분에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내 모 건설현장에서 길이 2m짜리 쇠파이프 4개(시가 2만4천원 상당)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P씨는 “공사현장에서 다 쓰고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 일부러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

○~그러나 경찰은 고물 수집을 하는 P씨가 절도 등 전과 6범으로 드러나는 등 상습성이 있다고 보고,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구방출동공회) (082) 227-9940

총장점 (금남중원입) (052) 227-9970

www.hanbitmusic.co.kr

거울방학 대개강 01월 2일 01월 5일

합격전라실명회

합격 1위

한빛고시학원

www.hanbitmusic.co.kr

www.hanbitmusic.co.kr

www.hanbitmusic.co.kr